

화학제품 수입단가 상승폭 확대

한은, 2003년 지수 11.3% 상승 ... 국제유가·원자재 가격급등

2003년 국내 화학제품 수입단가 지수가 2002년 대비 11.3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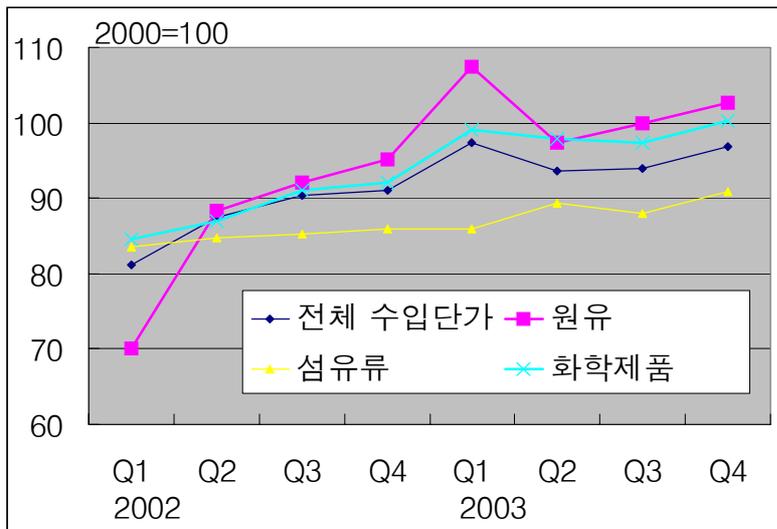
한국은행에 따르면, 2003년 전체 수입단가 지수는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소비재의 오름세 확대로 전년대비 9.3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 2002년의 3.8% 하락에서 반전된 것이다.

원자재 중에서는 수입비중이 높은 원유(18.2%)를 비롯해 철강재 20.9%, 화학제품 11.3%, 비철금속 8.5%, 경공업 원료 8.0% 등 대부분 품목이 올라 전년보다 14.5% 상승했다.

화학제품의 수입단가 지수는 평균 98.7로 2002년 88.7에 비해 11.3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 화학제품 수입단가는 2003년 1/4분기 99.1에서 2/4분기 97.8로 잠시 안정된 이후 3/4분기 97.3, 4/4분기 100.2로 상승세를 나타냈다.

원유 수입단가 지수도 1/4분기 107.5, 2/4분기 97.3, 3/4분기 100.0, 4/4분기 102.6으로 2002년 평균 86.4에서 2003년 102.1로 18.2% 높아졌다.

수입단가지수 등락을 추이



한편, 자본재는 반도체(-7.0%) 수입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서고 정보통신기기(-8.1%), 기계류 및 정밀기기(-0.1%) 등이 내림세를 보여 전년보다 2.7% 하락했으나 하락폭은 둔화됐다.

또 소비재는 비내구소비재(-9.5%)가 내린 반면, 대두, 소맥 등 곡물(11.5%)과 금, 승용차 등 내구소비재(9.5%), 소고기, 어류 등 직접소비재(1.4%)가 올라 전년보다 4.8% 상승했다. <조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4/22>